

“올바른 식습관을 노래로 배워요”

전주대, '방귀공주와 설탕왕자' 공연
어린이 눈높이 맞춤 교육 인형극 '호응'

전주대(총장 이호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전주 대학교 JJ아트홀에서 어린이의 보건교육을 위한 뮤지컬 인형극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진행된 뮤지컬은 '방귀공주와 설탕왕자'라는 제목의 인형극으로 어린이의 편식을 예방하고 스스로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공연을 진행했다.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위생관리를 하지 않아서 지독한 방귀를 끼게 된 '방귀공주'와 방귀공주를 구하러 여정을 떠나지만 단 음식만 좋아하고 운동을 게을리 하는 '설탕왕자'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폭소를 자아내면서도 강한 교육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건강 관리나 양치질법 같은 어린이들이 무관심한 내용을 노래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해서 호응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 32곳에서 약 800여



지난 18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어린이의 보건교육을 위한 '방귀공주와 설탕왕자' 뮤지컬 인형극이 열렸다.

명의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뮤지컬 인형극은 오전 10시20분과 11시30분 1일 2회 공연되었으며 공연장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 무대로 세팅하고 공연 전에는 레크레이션으로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기자



2018 익산교육장배 중학생 미술실기 대회 개최

2018 익산교육장배 중학생 미술실기 대회가 지난 15일 삼기중학교에서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회에는 모두 11개 종목(상상화, 소묘, 예쁜손글씨, 서예 등)에 161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평소 갖고 있던 실력을 발휘했다.

대회에 입상한 학생들은 익산을 대표해 도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매년 실시되는 대회지만 이번 대회는 농촌학교인 삼기중학교에서 장소를 협조해정보 교류와 도·농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각자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향후 진로탐색에도 좋은 기회가 됐다.

이수경 교육장은 “대회 준비와 심사에 협조해 준 관내 미술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참가 학생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꾸러미 전달

익산시 인화동 회망동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해석, 나은정)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정성이 높다.

이 협의체는 찜는 듯한 무더위에 시원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홀로 어르신, 장애인 가구 등 17세대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가득 담은 꾸러미를 준비해 전달했다. 5월부터 꼼꼼하게 준비한 꾸러미는 여름철 입맛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어르신들을 위해 두유를 비롯해 시리얼, 천마차 준비해 충분한 영양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보양식으로 는 사골곰탕과, 김, 생선, 계란 등 밑반찬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제품 13종으로 알차게 구성하여 인화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꾸러미는 19일부터 이들에 걸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했으며 인부를 묻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따뜻한 시간도 가졌다. /익산=우병희 기자

고창경찰서, 주민공감 친절응대요령 반복토크 전개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전화 및 방문 민원에 대해 친절응대요령을 공유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의식을 높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을 친절과 미소로 맞이하고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인 응대요령 향상 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광중 민원실장은 “친절한 응대는 물론 업무처리는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최상의 주민공감치안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수경찰서,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회의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정재봉)는 19일 대여성악성범죄(성·가정·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집중단속 추진본부 회의를 열었다.

대여성악성범죄 추진본부는 서장을 중심으로 여성청소년·강력팀 등 관련 기능이 대응 역량을 집중하여, 대여성 악성범죄 신속·적극 수사, 2차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여성악성범죄 근절 방안, 112신고 신속 대응, 피해자 보호 등 기능별 총력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여성불안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골목길, 공공화장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자체와 협조해 취약구조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임실경찰, 對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 자체회의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 여성청소년계는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위해 지난 18일 자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8월 24일까지 진행되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기간 중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며 대응강화기간을 운영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현장경찰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1633,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에 전화하여, 상담사 및 현장 근무자들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체계적인 신변보호로 안전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무주경찰서,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을 7월 31일까지 운영을 통해, 불법총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 해소와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 동안 총기소지자 대상 일제점검 통지문을 발송하고 문제메시지 발송, 현수막을 게시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엽총, 공기총 등 허가된 모든 총기류 445정으로, 총기허가 결정사유 발생 여부, 도난·분실 및 불법 개·변조 사항을 집중 점검 예정이다. 점검을 위해서는 총기 소지자가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총포담당 경찰관이 직접 거주지 방문·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윤중섭 서장은 “이번 점검은, 총기소지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과 도난, 분실 및 개·변조 등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총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함으로, 점검 불응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기간 내에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